광주·전남 자동차 120만대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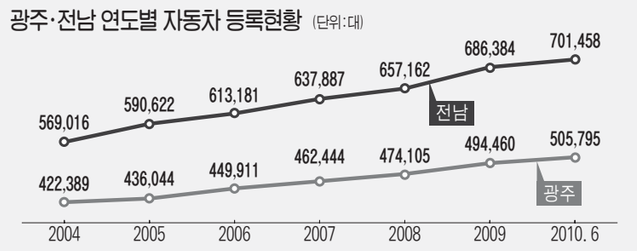
6월말 등록 기준…상반기 2만6천여대 늘어

광주, 가구당 0.96대…'1가구 1승용차' 눈앞

광주·전남 차종별 등록현황 (2010년 6월말 기준, 단위:대)

	합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광주	505,795	392,388	28,411	83,562	1,434
전남	701,458	453,760	44,629	198,352	4,717
전국	17,647,799	13,340,597	1,063,343	3,189,009	54,850

광주·전남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대)



광주·전남이 자동차 120만대 시대를 맞았다. 광주가 지난 4월 50만대를 넘어선데 이어 전남도 지난달 70만대를 돌파했다.

특히 광주의 경우 1가구당 0.96대(전국 0.76대)를 보유해 '1가구 1승용차 시대'에 바짝 다가섰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경기 회복과 신차 출시로 올 상반기 자동차 수가 32만대 증가했다.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1765만대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3.2% 늘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24만대)보다는 무려 34.7% 급증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334만대(75.6%), 승합차 106만대(6.0%), 화물차 319만대(18.1%), 특수차 5만대(0.3%) 등이었다. 수입차는 46만8690대 등록돼 2.7%를 차지했다.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83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06만대(23.2%)로 가장 많았고, 서울 296만대(16.8%)·경남 134만대(7.6%) 순이었다.

광주는 올 상반기 1만1335대 늘면서 50만대를 넘어 6월말 현재 50만5795대(2.8%)를 기록했다. 지난 2006년 45만대(44만9911대)에 육박한 이래 지난해 말 49만4460대, 올 4월 50만대를 넘었다. 3년여 만에 5만대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52만8185가구가 살고 있는 광주의 경우, 자동차가 50만5795대로 1가구당 0.96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당 1대 꼴인 셈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39만2388대로 6개월 사이에 1만1475대가 늘었다. 화물차 8만3562대·특수차 434대로 각각 471대와 16대 증가했다. 반면 승합차는 627대가 줄어 2만8411대였다.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16만228대(31.7%)로 가장 많았고, 광산구 13만1246대(25.9%), 서구 11만4552대(22.6%), 남구 6만8298대(13.5%), 동구 3만1471대(6.3%) 순이었다.

전남은 지난달 70만대를 돌파해 70만1458대(3.9%)였다. 지난 2006년 60만대를 넘어선 이후 4년 만에 70만대를 돌파했다. 해마다 2만대 이상 증가세를 보였고 올 상반기에만 1만5074대가 늘어났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45만3760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물차 19만8352대, 승합차 4만4629대, 특수차 4717대 순이었다. 특히 농도의 특성상 화물차의 비중이 28.2%로 전국 평균(18.0%)보다 크게 웃돌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전국 지점장들이 지난 9일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열린 '하반기 전국 지점장 판매 결의대회'에서 하반기 내수 35% 달성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기아차 제공〉

기아차 "하반기 내수점유 35% 목표"

전국 지점장 등 500명 판매 결의

기아자동차는 지난 9~10일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2010 하반기 전국지점장 판매결의대회'를 열고 하반기 내수시장 점유율 35%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대회에는 서영종 사장을 비롯해 전국 지역본부장과 지점장, AS사업부 등 국내 영업본부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서 사장은 격려사에서 "상반기 기아차가 거둔 성과는 현장을 뛰어다닌 전 임직원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며 "하반기에도 제품에 대한 자신감,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토대로 기아차 돌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아차는 상반기 22만8189대를 팔아 내수 점유율 32.1%를 달성했다. 매월 판매량이 늘어 지난달에는 36.8%까지 치고 올라간 상태이다. 특히 신차 K5와 K7, 스포티지R, 쏘렌토R의 판매량이 호조를 보여 이 추세라면 하반기 목표 달성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

지역 아파트 경매 확 줄었다

올들어 광주 60%, 전남 88% 급감

올해 들어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및 토지 경매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광주지역 아파트 경매 건수는 모두 8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73건보다 59.5% 줄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임대사업자와 건설사의 잇단 부도로 아파트 물량이 대거 경매에 넘어와 물건 수가 급증했지만 올해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매각률은 50.7%를 기록했고 매각가율은 88.8%, 평균 응찰자 수는 7.2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는 광산구 운남동 운남주공4단지 59.8㎡형으로 34대 1을 기록했고, 매각가율 1위는 북구 삼각동 호반아파트 59㎡형으로 감정가(4800만원) 대비 115.6%(5550만원)에 매각됐다.

전남지역은 더 심했다. 올 상반기 아파트 경매 건수는 3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30건보다 무려 88.4% 급감했다. 매각률은 48.4%, 매각가율은 91.6%, 평균 응찰자 수는 5.6명을 기록했다.

전남의 아파트 경쟁률 1위는 목포시 상동 동아아파트 85㎡형으로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매각가율 1위는 순천시 옥천동 현대아파트로 감정가(1154만원) 대비 135%(1561만원)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토지 경매도 감소했다. 올 상반기 토지 경매 건수는 96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2471건)보다 22.8% 줄어들었다. 하지만 전국 토지경매 건수와 비교하면 전국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전남 물건은 많았다. 영광군 군서면 보라리 임야에 22명이 응찰해 최고 경쟁률을 보였고,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임야가 감정가(214만원) 대비 1401%(3000만원)의 매각가율이 가장 높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산업계 "뭉쳐야 산다"

기아차-SK텔레콤 등 이업종간 제휴마케팅 활발

"뭉쳐야 잘 산다."

산업계에 업종간 벽을 허문 제휴 마케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서로 다른 업종끼리 손잡고 제품개발이나 프로모션을 함께 진행해 제품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고객 만족도도 높이려는 취지다.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기아자동차와 SK텔레콤은 지난 7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휴 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7~8월 두 달간 기아차 승용·RV를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인 '갤럭시S'의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명 커피전문점인 '커피빈'과는 'i30-커피빈 제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달 16일까지 전국 커피빈 매장에서는 i30 로고가 삽입된 컵홀더, 진동기, 핑크쿠폰을 사용하고, 매장 방문 고객 중 추첨을 통해 i30 차량 2대와 커피빈 상품권을 증정한다.

GM대우는 올림픽 공원 소마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키스해링 전시회'에 키스해링 작품으로 외관을 장식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아트카를 전시,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와 '자동차-반도체 상생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삼성전자는 오는 2012년까지 정부지원금 100억원을 포함해 총 200억원을 투입, 자동주차와 스마트키, 연비개선 배터리 센서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개발한다.

LG전자는 지난 5월 KT와 함께 셋톱박스가 내장된 TV인 '쿡(QOOK) TV 일체형 LG 인피니아' 신제품을 공개하고 협력 마케팅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中企근로자에 여행비 22만원 지원

중기중앙회 '여행바우처' 시행 … 오늘부터 접수

중소기업중앙회가 저소득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국내 여행경비를 최대 22만5000원까지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월 소득 212만5000원 이하인 저소득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10월까지 국내 여행 소요경비의 30~50%(최대 15만원)를 지원하는 '2010 여행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영업배상책임보험(PL보험)에 단체로 가입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문화부 지원금의 50%(7만5000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단순히 철도 승차권이나 항공 탑승권을 구입하거나 골프 등 이른바 '사치상품'을 이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여행상품을 구매하면 최대 22만5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여행바우처 홈페이지(www.vtour.kr)에서 하면 된다.

문의 02-2124-3085.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근로자 3명 중 1명 '알바·하루벌이'

우리나라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은 아르바이트나 '하루벌이'로 생활하는 일용근로소득자(daily worker)인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상용근로소득자) 급여구성'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용근로소득자가 1404만5580명이었고, 일용근로소득자가 738만69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일용근로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4.5%로,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일용근로소득자인 셈이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397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12 13 17 22 25 33		8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3,499,519,700	3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6,443,867	31
3	5개 숫자 일치	1,280,937	1,366
4	4개 숫자 일치	52,265	66,958
5	3개 숫자 일치	5,000	1,089,481

팝콘복권 (제205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5조	656431
2	1억	3조	377267
		2조	526544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68357
5	50만	각조	7380
6	2천	각조	08
		각조	65
		각조	34
7	1천	각조	3
		각조	0
		각조	5

▲ 코스피지수 1,723.01 (+51.19)
▲ 코스닥지수 492.15 (+6.46)
▲ 금리 (국고채 3년) 3.94% (+0.12)
▼ 원·달러 환율 1,196.00원 (-32.50)

※수치는 9일 기준 1주전과 비교